

모 포털사이트는 “유상무 잘생겼다”를 검색하여 검색순위 끝자
리가 ‘39’인 경우 상품을 받는 이벤트를 열었다. 그리고 이는 네티
즌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. 그런데 왜 유상무씨는 그
포털사이트에서만 이런 이벤트를 했을까? 해답은 특허에 있었다.
해당 포털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검색어에 대
한 검색 등수를 산출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1분
동안 이메일 200억통, 구글 검색 200만회1)가 생성되고 있는 빅데
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인 정보검색
분야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.

- 1) 국립중앙과학관, 빅데이터 설명 자료

□ 출원주체별 출원 동향은, 내국인이 75%, 외국인이 25%를 차지하고, 내국인의 75% 중 기업은 40%로 다수(중소기업 22%, 대기업 18%)이고,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24%, 개인이 11%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[붙임2]

○ 대기업의 출원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, 중소기업과 대학·연구소의 출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검색기술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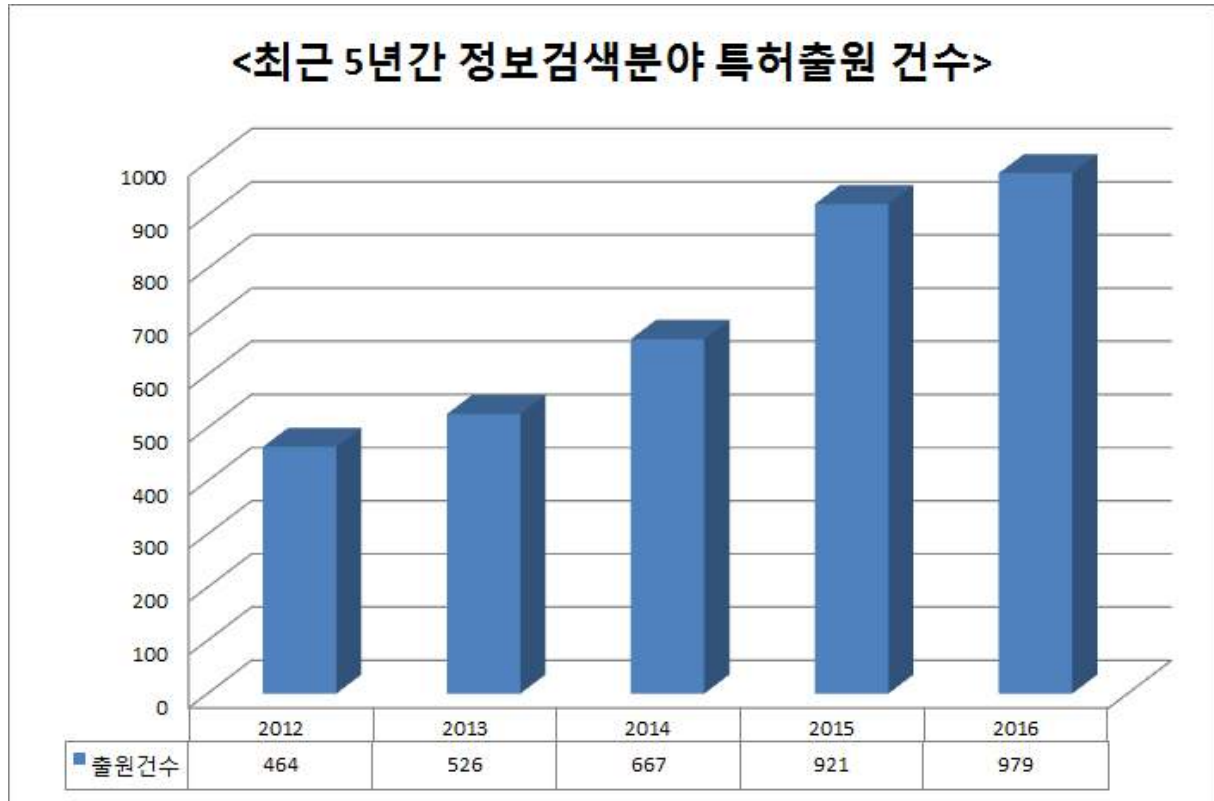
□ 다출원 기업을 보면, 삼성전자 190건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161건에 이어, 네이버, 마이크로소프트(MS), 구글이 뒤를 잇고 있다.[붙임 3]

○ 글로벌 검색분야의 강자인 구글, 네이버, MS가 정보검색분야에 다출원하고 있고, 특히 대표적 출연연구소인 ETRI가 MS와 더불어 5년 연속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.

□ 정보검색분야의 최근 2년간 세부 기술분류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, ‘효율적 데이터 저장’이 26%, ‘인터넷 검색’이 19%, ‘DB시스템 구조’가 14%, ‘자연어검색’이 13%, ‘이미지 검색’이 8%, 기타 20%로 나타났다.[붙임4]

□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“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바, 정보검색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우리 기업, 특히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(단위 : 건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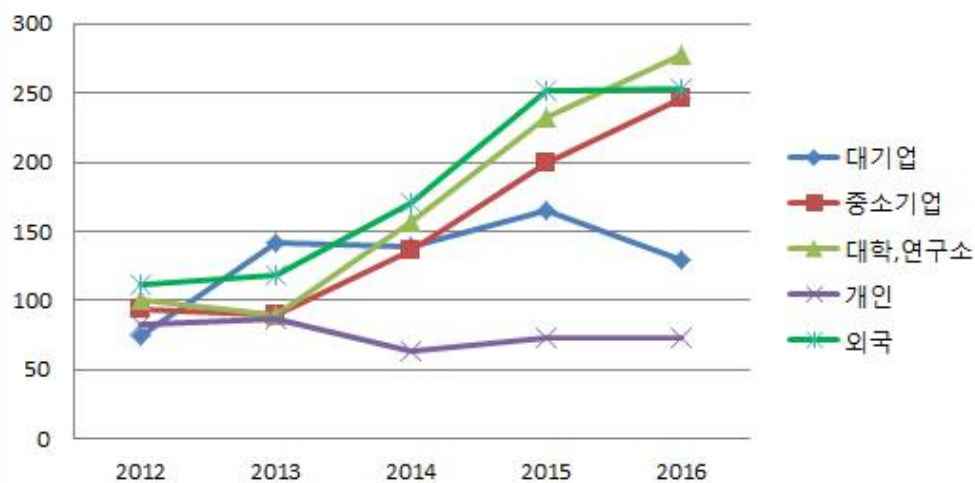


<출원주체별 출원비율>



(단위 : 건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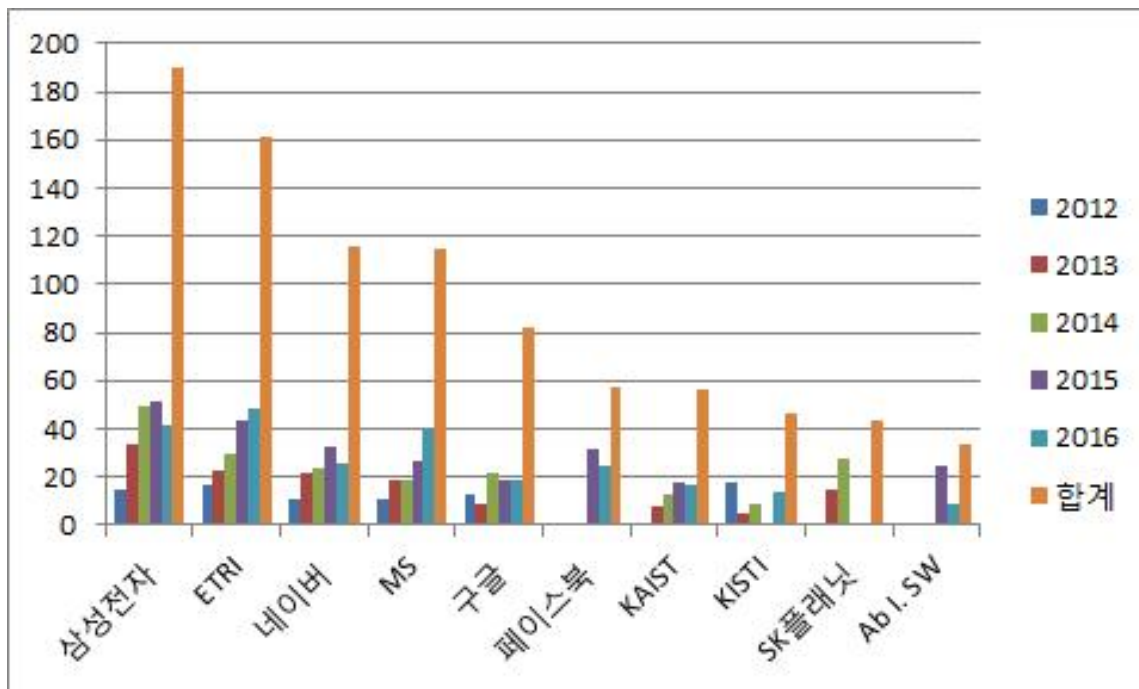
<최근 5년간 출원주체별 출원추세>



붙임3

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다출원 기업

(단위 : 건수)



<세부 기술분류별 출원비율>

